

전주한옥마을 1500만 관광 시대 '눈앞'

8월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75% 증가 총 1062만여명 관광객 다녀가... 1500만명 이상 유치 기대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 지난 8월 기준으로 총 1062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604만 여 명과 비교해 75% 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주시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29만4916명을 넘어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관광을 하고 있다.

시는 이동통신기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전주한옥마을에 총 1062만 8878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153만3615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5월이 가장 많았으며, 관광객이 가장 적었던 2월에도 109만6787명으로 집계돼 매월 100만 명 이상이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것으로 분석됐다.

을을 중심으로 전주 곳곳에서 펼쳐진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관광을 하고 있다.

높이기 위해 그간 운영해온 △전주세계문화주간 △전주문화재야행 △전주예술난장 △전주한옥마을 특화축제 등에 이어 오는 11일로 예정된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를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다. 동시에 △한옥마을 온라인 및 낭만

체험 스탬프투어 운영 △한옥마을 자율거리공연단 및 플랫폼 운영 △한옥마을 문화장터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된다.

이에 앞서 시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로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전주한옥마을이 국제적인 관광명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로써 전주한옥마을에서 기존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음식 판매가 가능해졌으며, 건축물 층수도 대조로와 은화로 지구에 한해 지상 2층까지 허용됐다.

시는 한옥마을을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상가 입점이 가능해진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옥마을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초등학생 등굣길 지도 나선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이 8일 전주 조초초등학교를 방문해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보행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도시재생사업 8년 과정 한자리에

10~18일 '전주시 도시재생 주간' 개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추진된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과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는 행사가 열린다.



전주시와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전주현대미술관과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동근숲' 등 전주 원도심 일원에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8년의 과정을 한자리에 살펴볼 수 있는 '전주시 도시재생 주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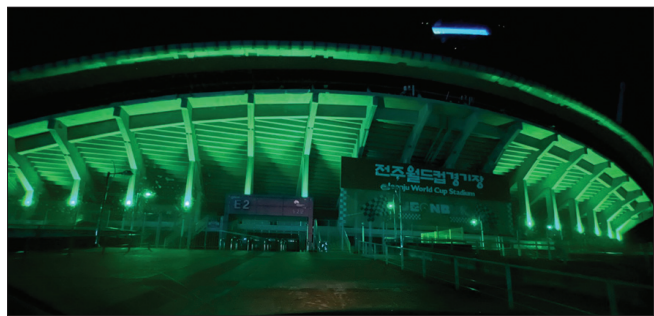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전주시민에게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전달하고, 도시재생사업 기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그동안 추진된 16개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처음으로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행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권역별 주민 주체와 함께하는 오픈식을 시작으로 '전주현대미술관'과 '동근숲'을 기

점으로 곳곳에서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을 '사람' 중심으로 풀어낸 아카이브 전시 '전주는 지금 재생 중'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운영 주체인 동근숲협동조합과 협업체가 함께하는 로컬브랜드 마켓 '도시의 생일파티' 등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월드컵경기장, 초록빛 물결로 새단장

동측 관중석 출입구 경관조명 · 보안조명 초록LED로 교체



고속도로 전주나들목과 인접해 '전주의 얼굴'로 불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초록빛 물결로 새롭게 단장됐다.

고속도로 전주나들목과 인접해 '전주의 얼굴'로 불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초록빛 물결로 새롭게 단장됐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월드컵경기장 동측의 경관조명과 가로등 보안 조명을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FC의 메인 팀컬러인 초록빛 LED 조명으로 교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향후 전주월드컵경기장이 갖는 상징성을 강화하고,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나머지 서·남·북측의 관중석 출입구의 조명도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의 관람 편의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관람석을 교체한 데 이어 올해 경관조명을 교체했으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관람객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가능하도록 경기장 내 필드 조명을 LED로 교체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찾는 축구팬들의 주차·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유료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AFC 챔피언스리그를 대비하기 위한 연습경기장과 전시관, 팬 숍 시설 확충 등 숙원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초록빛 물결로 새단장한 전주월드컵경기장이 호남제일문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축구와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사회 첫발 내딛는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응원

전주시 여의사회 · 이웃사랑의사회,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전달

전주지역 의료인들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 여의사회(회장 김미애)와 (사)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는 8일 전주시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시설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주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

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미애 전주시 여의사회 회장은 "전주시 여의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홀로 독립하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기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아동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태 (사)이웃사랑의사회 이사장도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전북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호종료아동의 안

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홍보 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지난 7일 전주객사길 일대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 품목 규제와 관련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와 대한제과점협회 전북지회 회원, 휴게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회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이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이들은 음식점과 카페 등 규제 대상 업소를 방문해 홍보물과 안내문을 배포하며, 1회용품 규제품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와 어떤 업종에 적용

되는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매월 10일 시행 중인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며 보다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사항을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지난 7일 추가 품목 중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빨대와 컵라면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방침이다. /김옥기 기자

색깔있는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HU**

百 人 百 色

백 인 백 색

축! 전주매일 창간

호원대학교
HOWON UNIVERSITY

내 인생의
COLOR를 찾는 곳!

입/학/상/담
1588-9779